

제6부 · 일을 통째로 맡기기

제4편 · 나만의 업무 시스템 · 51~60단계 · 폴더째 일을 맡기고 결과물을 받는다

단계	핵심 한 문장	난이도
51 · 답해 주는 AI와 일해 주는 AI	묻고 답하는 일과 맡기고 받는 일은 서로 다르다.	★★☆
52 · Cowork를 열고 작업 폴더 꾸리기	어떤 폴더를 맡기느냐가 곧 첫 지시다.	★★☆
53 · 리서처로 쓰기	조사 범위와 출처 기준을 주고 보고서로 받는다.	★★☆
54 · 데이터 분석가로 쓰기	엑셀 묶음을 맡기고 표와 차트로 받는다.	★★☆
55 · 보고서 작성자로 쓰기	흠어진 메모로 주간 보고 양식을 채운다.	★★☆
56 · 편집자·검토자로 쓰기	내가 쓴 글을 비평하게 하고, 고칠지는 내가 정한다.	★★☆
57 · 프로젝트 매니저로 쓰기	회의록에서 할 일·담당·기한을 뽑는다.	★★☆ 선택
58 · 맡기는 법, 확인하는 법	끝났다는 보고를 받으면 결과물부터 열어 본다.	★★☆
59 · 권한과 되돌리기	지우고 덮어쓰는 일은 반드시 확인을 받게 한다.	★★☆
60 · 한 동료에게는 한 가지 일만	여러 일을 한꺼번에 맡기면 어디서 틀렸는지 찾을 수 없다.	★★★

이 부의 과제 · 맡겨 두고 받은 결과물 하나 내 실제 업무 가운데 여러 파일을 재료로 쓰는 일 하나를 골라, 두 단계 이상으로 나눠 Cowork에 맡기고 최종 결과물을 받는다. 재료는 공개 자료나 이름과 숫자를 바꾼 샘플만 쓴다.

완료 기준

- 결과물이 두 단계 이상에서 나왔고, 단계마다 파일이 남아 있다.
- "재료" 폴더의 파일이 처음과 똑같다. 지워지거나 바뀐 파일이 없다.
- 확인 기록에 원본과 직접 맞춘 숫자가 적어도 하나 있다.
- 결과물 안의 숫자나 문장 하나를 골라 어느 단계 파일에서 왔는지 찾아낼 수 있다.
- 판단 단락에 "그대로 쓴다" 또는 "고쳐 쓴다"가 이유와 함께 적혀 있다.